

엔바로테크, 나노 윤활유첨가제 개발

친환경 · 고성능 고체 제품 개발 ... 수입 대체효과 5000억원 달할 듯

국내기업 엔바로테크가 나노 윤활유첨가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.

삼창기업의 자회사인 울산 소재 엔바로테크는 친환경 · 고성능 고체 윤활유 첨가제인 <NANO1L>을 개발했다고 6월25일 발표했다.

엔바로테크는 응용기술 개발기업으로 2006년부터 3년간 울산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원받아 CNC(액상탄소나노)의 응용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윤활유첨가제 개발에 나서 친환경 고체 윤활유첨가제를 개발했다.

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<NANO1L>은 분산성이 우수한 나노 사이즈 입자가 윤활 시스템 내에서 마찰을 감소시키고 마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운전할 때 수입제품에 비해 69%의 마찰 절감효과를 보여 연비가 최대 7.9% 향상됨으로써 연간 약 6000억원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엔바로테크 관계자는 “국내에서는 첨가제를 100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나노윤활유 첨가제 개발로 약 5000억원의 수입 대체효과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

국내 윤활유 시장은 2조2000억원대, 첨가제 시장은 6000억원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6/25>